

원유 수입액 비중 역대 최고수준

2012년 11.7%로 1.1%포인트 상승 ... 투기자금 증가도 불안요인

국제유가 급등으로 2012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원유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센터와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투자은행(IB)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GDP 대비 원유 순수입 비중은 11.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유가가 오름에 따라 2011년 10.6%보다 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금융위기가 몰아쳤던 2008년 11.0%보다 높은 수준이다.

GDP 대비 원유 순수입 비중은 1996년 3.7%에서 꾸준히 상승해 6%대에 머물렀으나 2008년 급격히 치솟았고 이후 2009년 8%대로 하락했지만 다시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급상승함에 따라 에너지 부문 지출이 증가하면 투자, 소비 등 다른 부문 지출이 줄어들어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물가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무라는 한국의 GDP 대비 원유 순수입 비중이 높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고, 크레디트스위스는 한국의 수출이 경기에 민감한 품목 위주로 구성돼 국내 증시가 세계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국제시장에서 원유에 대한 투기자금이 큰 폭으로 증가해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도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WTI(서부텍사스 경질유) 투기 순매수포지션은 하루 30만건의 계약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투기 순매수포지션은 원유 선물옵션 시장에서 실수요자를 제외한 투자자의 순매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투기 순매수포지션이 미결제약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파악하는 투기세력 시장점유율은 원유가 최근 13% 내외로 상승해 2004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19>